

## 세상의 관심 밖 키르기즈스탄에 평화!

- 이름 : 최성은
- 근무기구 및 부서 : World Food Programme in the Kyrgyz Republic Osh Sub-office
- 직위 : UN 전문 봉사단 International UNV (Peacebuilding Programme Officer)
- 지원 경로 : 외교부 2015년 전문봉사단 선발계획 공고를 통한 개별지원
- 근무 기간 : 2015.12.03.—2017.12.02.

### I. 들어가며

인생의 2년을 유엔 전문봉사단(UNV)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UNV 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을 전폭 지원해 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최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하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이 글이, 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UNV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II. 지원 과정: 지구청년, 그 첫걸음

누군가 나에게 지구청년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이나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학교 3학년 시절 수강한 故 Dennis Florig 교수님의 ‘평화연구(Peace Studies)’ 수업을 언급할 것이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 참여를 장려하는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 방식은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나로 하여금 국제사회 이슈를 깊이 인식하게 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고통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다시금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학부시절 다짐을 바탕으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평화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프랑스, 르완다에서 개발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아갔다.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며, KOICA의 분쟁취약국 지원 전략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스빌딩 (Peacebuilding)에 대한 관심과 이론지식은 누구보다도 앞섰지만, 직접적인 피스빌딩 현장사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터라, 정책 업무에 대한 내 한계를 체감하였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현장에서 피스빌딩 사업을 직접 담당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2015년 7월, 나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UNV 전문봉사단 선발 공고를 확인하게 된다. 2015년 공고된 10개의 UNV 포지션 중,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WFP 키르기즈스탄 피스빌딩 프로그램 오피서” 선발 요강이었다. 오랜 기간 마음에 품어오던 피스빌딩 분야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담당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준비과정

중 직무 내역서 (Description of Assignment)를 꼼꼼히 파악하고, UNV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활동 내역들을 내 이력서에 담아내었다.

UNV 인사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원한지 며칠 후 UNV로부터 내 프로파일을 WFP 측에 제안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 한 달이 지났을까. 내부 서류심사 이후 내 프로파일이 최종 면접 후보자 3인에 선발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UNV 키르기스스탄 필드 유닛 담당자로부터 받게 되었다. 나는 주변 UN 또는 UNV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UN 고유의 역량 중심 면접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면접 당일,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이어주는 Skype가 연결 되었다. 면접위원은 총 3명으로, UNV 키르기스스탄 필드 유닛 총책임자, WFP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장, WFP 키르기스스탄 프로그램 헤드가 화면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단한 면접위원 소개 후, 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였으나, 인터넷 커넥션 문제로 인터뷰는 계속해서 중단되었다. 결국에는 화상 화면을 끄고 오디오로만 진행하였는데, 면접 당사자인 나로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다. 면접 질문에 나의 과거 관련 업무와 르완다 현장 경험을 들어가며 주어지는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인터뷰 시간 동안 WFP 사무소장께서 간단한 사무소 소개와 내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고용자 중심의 일방적인 면접 유형이 아닌 고용자와 지원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약 40분가량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최종 결과를 초초하게 기다렸고, 이틀 후 UNV로부터 내 프로파일이 “under serious consideration” 과정에 있으니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모든 게 마치 나를 위해 예정된 것 마냥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고, 5일이 지난 후 UNV 측으로부터 최종 합격 소식과 함께 정식 오퍼(offer)를 받게 되었다.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모든 UN의 고용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었는데, 나의 경우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키르기스스탄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 **III. 활동 내용 : 세상의 관심 밖 키르기스스탄에 평화를!**

내가 근무한 키르기스스탄 오쉬는 UN 내부 안전 등급 D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non-family duty station이다. 오쉬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다음으로 발전한 제 2의 도시지만, 오랜 기간 우즈베크와 키르기즈 민족 간 인종갈등이 있어왔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0년 6월 발생한 우즈베크-키르기즈 분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두 민족 간 보이지 않은 갈등은 아

직까지도 키르기즈스탄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데, 나 또한 오쉬에 거주하는 동안 두 민족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여러 번 체감할 수 있었다.

1991년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키르기즈스탄은 민족갈등 외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는 내가 키르기즈스탄 WFP 사무소에서 피스빌딩 프로그램 오피서로써 담당했던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의 국경문제**이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양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국경의 길이는 약 1,000km이지만, 이중 약 520km 만이 합의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을 두고 두 정부의 지지부진한 설전이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련연방 시절에는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의 나라로 살아갔으나, 소련 해체 후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 졌다. 국경지역 근처 키르기즈스탄 땅에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거주지(enclave)가 있는데, 대부분은 키르기즈스탄의 영역으로 통합 되어 있지만 몇 곳은 타지키스탄 영토로 규정된 마을들이 있다. 지도를 확인하면 바다 위의 섬처럼 키르기즈스탄 내 타지키스탄 영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두 민족 간에 사소한 갈등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타지키스탄의 거주지에서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차단되면서 모든 교류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또한 소련 시절 건설된 대부분의 관개수로 및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은 오늘날 두 나라로 독립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의 인프라가 양 국가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물과 전기 자원 및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마을들은 분리된 두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존해 필요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농업용수의 경우 물의 원천은 타지키스탄 호수이지만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개인프라 시설은 키르기즈스탄 소유로, 수로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시작되어 타지키스탄 마을을 거쳐 다시 키르기즈스탄으로 흘러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관개수로가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로 마을 주민들은 서로 더 많은 물을 차지하기 위해 수로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어가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유실되는 물도 많고 특히 하류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제대로 된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마을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경선 문제와 함께 열악한 자원 및 인프라 시스템은 국경지역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어렵게 하고, 이런 상황은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도 대물림 되어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사소한 갈등도 크게 부풀려지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다툼이 또 다른 분쟁 요소로 발전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유엔 기관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지역 발생이 우려되는 갈등의 근본 요소들을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으로써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피스빌딩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나의 UNV 활동 시

1) 키르기즈스탄 국가정보원 공식 집계로는 400-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추산하지만, 실제로는 2,000여명 가까지의 우즈베크, 키르기즈 민족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과 함께 2015년 12월 “Cross-border cooperation for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 ” 프로젝트 (이하 cross-border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론칭 하였고, 나는 오쉬에 베이스를 두고 WFP 키르기즈스탄 측 담당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Cross-border 프로젝트는 UN 피스빌딩 펀드(Peacebuilding Fund) 지원을 받아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두 국가의 5개 유엔 기관(UNDP, Unicef, WFP, FAO, UN Women)이 함께 하는 독특한 프로젝트였다. 각 유엔기관이 가지고 있는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갈등해소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원화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초반에는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두 지역사회 대표자 및 주민들 간의 미팅을 진행하여 서로의 고충과 의견을 나누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식수, 관개수, 목초지 등의 접근권 및 이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WFP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커뮤니티 인터뷰를 통해 기존 인프라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파악하였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 간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계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파악된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 당사자들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피스빌딩 사업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과정 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마을 간의 융합을 도모 하였다. 노동업무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식량안보의 기준점을 채우지 못한 사회보호대상자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활동 종료 후 WFP로부터 밀가루와 식용유를 공급받아 가정의 식량안보를 확보하였다.

지난 2년간 나는 cross-border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총 43개의 식수, 농업용수, 도로 등 크고 작은 피스빌딩 인프라 액티비티를 실행하였다. 세부 인프라 액티비티 발굴, 승인, 프로젝트 모니터링, 식량 배급, 평가 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WFP의 내부 운영체계와 사업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나와 함께 업무를 감당해 주었던 WFP 현지 직원의 도움이 참 컸다. 사업 초반 문제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 지방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현지 직원의 역할과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cross-border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은 키르기즈스탄 내에서도 특수한 국경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오랜 역사와 지형,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내 현지 동료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내 스스로 해 내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을 거치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직원을 신뢰하고, 그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와 사명감을 실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IV. 나가며: 국제기구 근무를 준비하는 또 다른 지구청년들에게

필드중에서도 필드인 Sub-office에 베이스를 두고 반나절이 꼬박 걸리는 국경부근 사업지를 매일 같이 종횡무진 하였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경험은 내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어질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개발 현장의 속사정은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현지인들의 오너십과 책임 의식이 없다면 국제사회가 쏟아 붓는 많은 자금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발 현장에는 외국인으로써 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역할 또한 분명히 있다. 현지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분석법, 통찰력을 가져다주며, 이들의 자립을 위해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 3자인 우리는 필드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하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현장의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년간 UNV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필드 경험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WFP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장께서는 나의 과거 경력과 관심분야를 인정해주고, 이것을 잘 응용하여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 물론 많은 기관들이 내부 인력난과 자금부족 문제로 UNV 또는 JPO 제도를 활용하여 인적자원을 충당 받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하지만, 우리는 공여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잘 활용한다면, UN에 공식적인 첫발을 내 닿기 전에 UNV로써 UN을 경험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UN의 가치와 신념에 잘 맞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분야 또는 직무가 자신의 마음 깊숙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인지, 지금의 경험이 향후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지 묻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실 UNV 프로그램은 유엔 시스템을 파악하고 유엔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활동 종료 이후의 상황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나의 경우 1년차 업무 성과에 대한 WFP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간 UNV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외교부 최대 지원 가능 기간인 2년 이후에는 UNV 경험을 밑거름으로 또 다른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에 진심을 다했었기에 모든 임기를 마칠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아무 연고도, 이유도 없는 키르기스스탄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키르기스스탄에서의 2년의 배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경험이 될 것을 확신한다. 비록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내가 흘린 땀방울과 심은 씨앗이 키르기스스탄의 평화구축에 작지만 진한 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지구청년들을 함께 응원하고 싶다! /끝/

## ANNEX: 사진



그림 1 국경지역 주민 당사자들의 관개수로 사업 참여 모습 ( '17.5)



그림 2 사업 종료 후 식량 배급을 받는 지역 주민들 ( '17.5)



그림 3 사업 공식 론칭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지방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관련 발표를 진행 ( '16.2)



그림 4 WFP 키르기즈스탄 사무소 직원 단체사진. 비쉬켄 사무소에 60명 오쉬 사무소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 '17.9)